

정신병적 장애(Psychotic disorder)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정신과, 정신건강증진연구회 / 박 영 민

들어가며

‘정신병’이라는 단어에 많은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미친’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병의 정의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현실 판단 능력(reality testing)의 유무를 평가하는 것이다. 현실 판단 능력이 없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오해가 자주 발생하게 되고 오해가 피해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가 힘들어진다. 경우에 따라 환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혼자 고립되게 되고 직업적,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정신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신병적 장애의 종류에는 ① 정신분열병 ② 망상장애 ③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기분장애 ④ 기타 - 분열정동형 장애, 단기정신병적 장애, 정신분열형 장애 ⑤ 물질관련 장애 (알코올, 약물) 등이 있다. 각각의 질병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정신분열병

사례 : “직장 동료들이 짜고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가정이 화목하고 성실한 20대 여성인 B씨는 큰 규모의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수개월 전부터 갑자기 동료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며 따돌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급기야는 마트의 점장이 직원들을 시켜 자신을 미행하고 회사와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자신을 감시한다고 확신하였다. 밖을 나기기가 두려웠고 집안에 이중삼중으로 잠금 장치를 해놓았으며 불을 꺼놓고 한낮에도 모든 방에 커튼을 쳐 놓고 있었다.

B씨는 병원에 내원하였고 과거력상 음주나 뇌손상의 증거는 발견되

글 쓰는 순서

- ① 직장의 정신건강
- ② 사업장내 문제와 정신질환
- ③ 정신보건윤리 및 비밀유지
- ④ 리더십과 직장문화
- ⑤ 사업장내 정서적 위기
- ⑥ 불안증과 스트레스
- ⑦ 우울증과 탈진
- ⑧ 인격문제
- ⑨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 ⑩ 정신병적 장애
- ⑪ 신체화장애와 정신신체질환
- ⑫ 사업장내 폭력

지 않았다.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되었다. 이처럼 정신분열병은 10대에서 20대 사이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흔히 발병하고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도 발병할 수 있다. B씨의 경우 동료들의 도움으로 비교적 회사에서의 생활이 일찍 가족들에게 전달되었고 이로 인해 병원에 조기에 내원하였기 때문에 치료 반응이 좋은 편이었다.

망상 장애

사례 : “형이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

50대의 A씨는 자신의 형과 함께 자동차 부품업을 경영하고 있었다. 1년 전 회사 경영 문제로 형과 크게 싸운 이후로 형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믿고 있었다. 형이 회사 돈을 몰래 빼내어 사적으로 유용하다는 확신이 들었고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의심이 자주 들었다.

그런 확신이 든 이후로 A씨는 회사에서는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고 집에서만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과 회사 관계자, A씨의 부인, 자식과 면담해 본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으며 A씨도 형이 횡령을 하거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여전히 A씨는 형과 관련된 일에서는 예민한 태도 및 피해망상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지내고 있었다.

망상이라 함은 어떤 논리적인 방법으로도 설득이 불가능한 잘못된 믿음인 것이다.

보통, 위와 같은 경우를 만나면 주변의 사람들은 A씨를 직접 설득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A씨는 직장에서의 형에 대한 피해망상 외에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었다. A씨는 망상 장애로 진단되었다.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기분장애

사례 : “이제 이 회사를 내가 인수한다.”

기업체 차장인 P씨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하고 술을 좋아하는 상사와 술친구를 해주어야 한다. 집에서는 부인의 바가지가 끊임이 없다. 주말에는 잠만 자고 싶지만 애들의 불만과 부인의 잔소리로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나선다. 길에는 길게 늘어선 차들의 행렬. 언젠가부터 왜 사는지 삶의 의미와 목표를 모르겠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 수개월째 P씨는 불면에 시달리고 우울감에 빠졌으며 의욕이 없어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한 달 전부터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며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았으며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세상을 다 가진 양 자신감이 올라갔고 수많은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스쳐갔다. 말이 많아지고 생각이 너무 많다보니 횡설수설하였으며 자신이 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였다.

사장을 만나서 회사 인수를 상의하라는 환청이 들려서 사장실로 올라가기도 하였다.

이 사례는 조울병에 과대망상과 환청이라는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사례이다. P씨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 미리 치료를 받았다면 이렇게 까지 병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 조울병도 치료 반응이 좋은 편으로 약물 치료와 스트레스 관리를 받고 난 후 P씨는 과거의 모습을 회복했다. 조울병의 경우 병이 나으면 후유증이 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행히 P씨는 복직되었다.

단기 정신병적 장애

사례 : “사람들이 무서워요”

20대 초반의 K군은 지방의 한 회사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K군은 학교 졸업 후 생애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회사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다. 낯선 곳에 있다 보니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소극적인 성격이라 사람을 사귀기도 쉽지 않았고 일도 고되고 힘들었다 했다. 1주일 전부터 직원들이 무섭게 느껴지고 온몸에 식은 땀이 났다고 했다. 계속되는 이유 없는 극도의 공포감과 긴장감이 전신을 지배했고 정신이 멍해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집에 전화해서는 무섭다는 이야기만 반복하였다.

입원 후 K군은 빠른 속도로 회복하였고 1주일 만에 퇴원하게 되었다. 자신도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K군은 이 병의 특성을 이해한 회사 경영진의 배려로 집 근처의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다.

이 병은 진단명 그대로 단기의 경과를 밟는다. 보통 발병한 지 한 달 이내로 소실된다.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거나 환경을 바꿔주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면 회복이 빠르고 약물도 빨리 중단할 수 있다.

알코올 유도성 정신병

사례 :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여요!”

J씨는 회사에서 알아주는 주당이다. 술을 워낙 좋아하고 먹었다 하면 끝까지 술자리를 사수한다. 하지만 J씨도 어느덧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다. 체력이 많이 약해짐을 느꼈고 간경변증이 와서 술을 끊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J씨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고 술을 줄이겠다는 다짐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J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 후로 귀속에서 자꾸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며 가끔은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자주 느껴졌다고 했다. 너무 놀라서 술을 끊었지만 술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증상은 변함이 없었다.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은 호전되었다. 이 일로 J씨는 완전히 술을 끊게 되었다.

결론

위의 사례들로 볼 때 일반 사람들이 흔히 미쳤다고 생각하는 정신병적 장애라 하더라도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다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위의 사례들은 대부분 직장에 복귀한 사례들이다. 따라서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미리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더욱

더 효율적인 직장 정신건강 증진 방안이 될 것이다.

결국은 직무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기업에 이익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경영진들이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장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포함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며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